다름이 진리 밝힘이니 온갖 꽃 새롭도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衆生諸佛不相侵
山自高兮水自深
萬別千差明此事
鷓鴣啼處百花新

중생과 모든 부처님이 서로 침범하지 아니하며 산은 스스로 높고 물은 스스로 깊음이로다.

만 가지 천 가지로 다름이 모두 이 진리를 밝힘이니 자고새 우는 곳에 온갖 꽃이 새롭도다.

중생과 모든 부처님이 서로 침범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진리의 낙을 누린다는 말이다.

어째서 그러하냐?

산은 스스로 높음이요,

물은 스스로 깊음이로다.

금일(今日)은 경자년(更子年) 하안거(夏安居) 결제일(結制日)이라.

대중(大衆)들이 이렇게 모여서 삼하구순(三夏九旬)동안 산문(山門)을 폐쇄하고 모든 반연(攀緣)을 끊고 불철주야(不撤晝夜) 정진(精進)에만 몰두하는 것은 끝없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위함이다.

중생에게는 숙세(宿世)의 업식(業識)이 태산처럼 가로막고 있고, 번뇌가 파도처럼 쉼 없이 밀려옴이라. 마치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노를 부지런히 저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가, 멈추면 뒤로 밀려가는 것과 같다. 간단(間斷)없는 정진만이 진취(進就)가 있고 궁극에는 진리의 문에 들어서게 됨이라.

수십 년 결제안거를 빠지지 않고 하였음에도 득력(得力)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반연(攀緣)과 습기(習氣)를 놀아나서 온갖 분별(分別)과 망상(妄想)과 혼침(昏沈)에 시간을 다 빼앗겨서 화두일념(話頭一念)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만약,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거나, 게으른 마음이 있으면 화두는 벌써 십만 팔 천리 밖으로 달아나 버리고 과거의 습기(習氣)로 인한 다른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음이라.

이 공부는 요행(僥倖)으로 우연히 의심이 돈발(頓發)하고 일념(一念)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신심과 발심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확철대오(廓撤大悟)에 대한 간절함이 사무쳐서 마치 시퍼런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이 온 정신을 모아 집중하지 않는다면 절대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다.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밥을 먹으나 산책을 하나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번 만번 하여 시냇물이 흐르듯이 끊어짐이 없도록 애를 쓰고 애를 써야 할 것이라.

이 부처님의 진리는 스님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든지 눈 밝은 선지식(善知識)을 만나서 바른 지도를 받아 착실히 수행해 갈 것 같으면, 금생(今生) 한 생에 이 일을 다 마쳐 한가한 무사장부(無事丈夫)가 될 수 있다.

이 최상승법(最上乘法)에서는 승속(僧俗)이 따로 없다.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지 형상(形相)을 논하는 법이 아니다.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방거사라는 훌륭한 거사(居士)가 있었다.

하루는 방 거사가 큰 신심과 용기를 내어 석두 선사를 친견하러 가서 예(禮) 삼배(三拜)를 올리고 여쭙기를, 만 가지 진리로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하는 자, 이 어떤 분입니까?하고 아주 고준(高峻)한 일문(一問)을 던졌다.

그러자 석두 선사께서는 묻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거사의 입을 틀어막았다. 여기에서 홀연, 방 거사의 마음광명



이 열렸다.

스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사는 석두 선사께 큰 절을 올려 하직인사를 하고는, 그 걸음으로 수백 리 길을 걸어서 마조 선사를 친견하러 갔다.

마조 선사 처소에 이르러 예(禮) 삼배(三拜)를 올리고 종전과 같이 여쭈었다. 만 가지 진리로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하는 자, 이 어떤 분입니까?

그대가 서강수(西江水) 물을 다 마시고 오면 그대를 향해 일러 주리라.

마조 선사의 고준한 이 한 마디에 방 거사의 마음광명이 여지없이 활짝 열렸다. 제불제조(諸佛諸祖)와 동일한 안목(眼目)이 열렸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마조 선사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 후로, 집에 돌아와서 대대로 물려받은 가보(家寶)와 재산을 전부 마을 사람들에게 흔연히 보시(布施)하였다. 가족은 부인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개울가에 오두막집을 한 칸 지어놓고, 산죽(山竹)을 베어다가 쌀을 이는 조리를 만들어 팔아서 생활하면서 참선수행(參禪修行)에 몰두하였다. 마침내 온 가족이 진리의 눈을 떴다.

하루는 방 거사가, 딸의 진리의 기틀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 마디를 던졌다. 일백 가지 풀끝이 다 밝고 밝은 부처님 진리로다.

그러자 딸 영조(靈照)가 즉시 받아서, 머리가 백발이 되고 이가 누렇게 되도록 수행을 하셨으면서 그러한 소견밖에 짓지 못하셨습니까?하고 아버지에게 호통을 쳤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버릇없다고 하겠지만 이 법을 깨달으면 그렇지가 않다. 이 최고의 법(法)을 논하는 데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방 거사가 딸을 보고 물었다.

너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고?

일백 가지 풀끝이 다 밝고 밝은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아버지 방 거사가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그러한 소견밖에 짓지 못했느냐며 호통을 쳐놓고는, 자신도 역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여기에 참으로 고준한 안목이 있다. 똑같은 말을 했지만 여기에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의 차이가 있다.

여러 대중은 방 거사 일가족을 알겠는가? 방 거사가 말한 '어렵고 어려움이여, 높은 나무 위에 한 섬 기름을 펴는 것과 같음이로다.' 한 것은 어떠한 진리를 표현한 것이며, 방 거사 보살이 말한 '쉽고 쉬움이여, 일백 가지 풀 끝에 불법의 진리로다.' 한 것은 어떠한 진리를 표현한 것인가?

또, 영조가 말한 어렵지도 아니하고 쉽지도 아니함이여, 곤하면 잠자고 목마르면 차를 마심이로다. 한 것은 어떠한 진리의 세계를 드러낸 것인가? 이 세 분의 낙처를 알고 가려낼 줄 안다면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와 동행(同行)할 것이다.

만약 산승이, 방 거사 일가족이 한 마디씩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 주장자(拄杖子)로 세 분에게 각각 삼십 방(棒)씩 때렸을 것이다.

만약 사람이 있어서, 방 거사 일가족이 멋진 법문을 하여 천추만대(千秋萬代)에 불법(佛法)을 빛나게 하였거늘, 스님은 무슨 장처(長處)가 있기에 고인들에게 방망이를 내리느냐?고 물을 것 같으면,

來年更有新條在
惱亂春風卒未休
내년에 다시 새 가지가 있어
봄바람에 어지러이 쉬지 못함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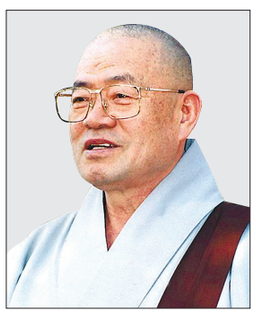
몰록 생사마음 쉬면 곧 대각이니라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

釋迦彌勒不相干
只貴革凡成聖事
步步超昇三界境
處處無非華藏界

석가와 미륵이 상간하지 아니하고
다만 범부를 고쳐
성인됨을 귀하게 여김이로다
걸음걸음마다
삼계의 경계에 뛰어 오르니
처처에 화장세계 아님이 없도다.

일대사를 요달하고져 하는 자는 저 본 참공안상에 간절히 간절히 참구해서(欲了一大事者 於本 叅公案上 切切叅詳) 이십사시 중에 한결같이 매하지 아니하면 의심이 홀로 드러나서(二十四時中 單單不昧 疑團獨露) 점점 아름다운 경계에 들어가리니 이러한 시절에 이르러서는 취사함을 얻지 못하며(漸入佳境到此時節 取捨不得) 홀연히 법왕성에 답착해서 일대사를 요달 하리니 간절히 모름지기 힘쓸지어다(忽然踏着 法王城了達一大事 切須勉之).



木人歌曲石女舞
火中生蓮萬民安
雲散淸空明月照
千年枯木更生花

나무사람이 곡조에 맞춰
노래 부르니 돌여인이 춤을 추고
불 속에 연꽃이 피니
만민이 편안하도다
구름이 흩어진 맑은 허공에
밝은 달이 비추고
천년 묵은 고목나무에
다시 꽃이 피도다.

一念頓亡生死心
息心當處卽菩提

한 생각에 몰록
생사의 마음을 쉬어 버리면
마음 쉰 그 자리가 곧 대각이니라.

증애·시비 끊어진 경지서 무생가 정진하길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

見色非干色
聞聲不求聲
色聲不礙處
親到法王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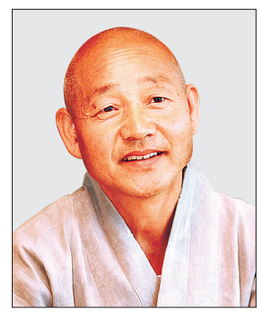
색을 볼 때 색에 간섭받지 않고
소리를 들어도 구하지 않네
색과 소리에 걸리지 않은 곳에서
친히 법왕성에 이르리라

구순안거 동안에 총림대중은 산문 출입을 삼가며 세상의 잡다한 인연을 멀리하고, 대중이 육화로 화합하며 수행자의 본분사를 해결하기 위해 정진합니다.

안거 동안에 화두 참구에 성심을 다하여 화두가 타파되면 성색(聲色)이 끊어진 경지에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색에 끄달리지 않아야 증애와 시비가 일어나지 않고, 증애와 시비가 일어나지 않아야 일체 인연을 바라밀 실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깊은 산 속의 수행도량만이 아닌 시끄러운 곳에서도 능히 챙길 수 있는 것이 화두이고 보리심입니다. 역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정진이 가능하다면 세상에 수행 아닌 것이 없습니다.

대하는 경계마다 숙업에 끄달리지 않으면 모두가 보리심이요, 시비에 끄달리면 모두가 번뇌입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성성하게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화두입니다. 안거 동안에 모두가 증애와 시비가 끊어진 경지에서 무생가를 부를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합니다.



與君同步又同行
起坐相將歲月長
渴飮飢飡常對面
不須回首更思量

그대와 함께 걷고 함께 행동하며
서고 앉기를 함께 함에 오랜 세월이 지났도다
목마르면 마시고 주리면 먹으며 항상 함께했으니
머리를 돌려 다시 생각하지 말라

만나는 일마다 생불 친견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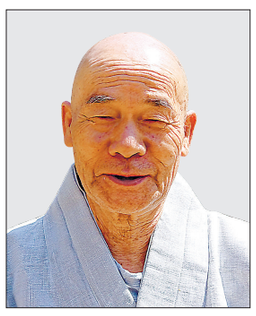
덕숭총림 방장 달하 스님

계절이 고요해지고 산천이 안정이 되었다. 결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안거 입방이 결정되고 나니, 아! 내가 하안거의 주인공이네! 산처럼 든든해지고 허공처럼 한가해졌다.

"이 동네 뜨는 태양 소식이 평침하다. 훤출하게 벗어나 신령스럽게 다 안았네. 밀밀이 틈이 없고 밝고 비어 말 붙일 수 없고 이름 지을 수 없네. 원만십성(圓滿十成)이라 찌꺼기가 없어 꿈결의 인연들이 이로 좇아 다해 소멸이로다. 일러라! 여기에 이르러 어떻게 밟아 갈 것인가? 상천월락야장반(霜天月落夜長半) 수공징담조영한(誰共澄潭照影寒). 서리 찬 하늘에 달은 지고 밤은 깊어 누가 맑은 못, 찬 그림자 함께 비추나."(만공 스님 법어)

자고 일어나면 먼저 와 있는 이 물건, 억 천만 년의 내가 먼저 와 있었네. 태풍이 구만리 파도를 일으켜 자지러지게 번개쳐도 이 놈은 일이 없네. 길길이 말아 엎어쳐 살같이 달려드는 물살이 돌아설 때는 멋이 있어 끝 파도 한 줄기가 전체 바다를 다 살리네. 식이 쉬어져 저절로 드러나는 이 본체, 고불이요 미생전이요 분별전이로다. 보이고 들리는 우주의 법계성이 통틀어 너요, 너라고 하는 이 물건이 저 광활한 세상을 어루만져주네. "이 뭘까" 한 생각이 세상 뿌리에 물을 주고 있네.

세월을 넘어 만고의 이 물건은 본생(本生)이요, 불생(不生)이요, 불멸(不滅)이로다. 굴리다 점점 저절로 되면 수류화개(水流花開)가 되어 언제나 정월 초하루 새 맛이로다. 내 육신법당에 이 뭘까 주불이 확실해지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 선불장에 대웅전이 중심이듯이 사대육신에는 "이 뭘까"가 중심이다. 육신법당에 화두 주불이 갖춰지면 지수화풍 사대의 지는 대지의 명당이요, 수는 인당수의 큰 바다요, 화는 뜨거운 태양이요, 풍은 태초의 바람이다. 사대가 갖춰진 내 몸은 불가사의 부처님이요, 백억 달마요, 사랑의 관세음보살이다가도 대웅전이요 와도 대웅전이다. "이 뭘까" 주불이 언제나 역력해서 맑은 바람 뜨거운 불에 세상 역병은 소멸되고 만사는 형통되네.



大道本來無程道
不知何處向安心

대도는 본래로 길이 없어. 알지 못하겠다! 어느 곳을 향하여 안심할꼬?

큰절 대중 의식주 해결은 일이 많다. 백명 대중이 입고 먹고 자고, 의식주 뒷바라지는 해도 해도 일이 끝이 없다. 혼자 사는 산중토굴 생활이 규모는 작아도 밥해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무하고 밭 매고 물 긷고 내 한 사람 의식주 해결이 혼자 해결하자면 일이 태산 같다. 그러나 큰절에 입방이 되면 다 해결이다. 대중규칙 따라주고 공부만 하면 된다. 큰절 원주 별좌 공양주 채공이 한없이 고맙고, 주지스님이 부처님처럼 고맙다.

누가 나한테 소원을 묻는다면 다음 생에라도 별좌 공양주를 해서 대중 시봉을 제대로 한 번 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요, 원력이다. 생각하면 살아온 지난날이 너무도 인색하고 박복해서, 복을 먼저 짓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이 된다. 세세생생 보살행의 부처님 전생이 항상 생각이 난다.

성성이 깨어있는 삶이 나의 집이로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송나라 때 석상초원(石霜礎圓) 선사가 말씀했습니다. "백 척의 장대 끝에서 어떻게 해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예상한 것처럼 당나라 때 장사경잠(長沙景岑) 선사는 미리 답변을 남겼습니다. "백척간두에 앉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진(眞)은 얻지 못함이라. 백척간두에서 모름지기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시방세계(十方世界)에서 전신(全身)을 드러내리라."

임제종 석상초원 선사는 분양선소(汾陽善昭)의 법을 이었고 문하에 황룡혜남(黃龍慧南)과 양기방회(楊岐方會)를 배출한 대종장(大宗匠)입니다. 임제종의 황룡파와 양기파라는 두 물줄기가 석상문하에서 배출된 것입니다. 장사경잠 선사는 남전보원(南泉普願)의 법을 이었으며 조주(趙州) 스님과 사형사제 관계인 대선장(大禪匠)입니다.

두 선지식의 '백척간두진일보'는 선가에서 오랫동안 회자(膾炙)되었고 지금도 사해(四海)에서 만민(萬民)의 입에 오르내리는 살아있는 화두입니다. 석상의 질문에 대하여 장사경잠 선사는 설사 백척간두에 앉을 수 있다고 해도 아직 진(眞)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백 척의 장대 끝에 앉아만 있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진짜 대오(大悟)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미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평지로 내려온 사람과 계속 평지에 머물렀던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석상 스님은 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야 한다고 말했겠습니까? 자리(自利)만으로는 이타(利他)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타를 실천할 수 없는 자리(自利)는 공허한 언구(言句)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백척간두'라고 하니 백 척 길이의 장대 끝이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언구에 걸려 바로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언구에 걸리면 백척간두는 고사하고 일척간두조차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언구에 걸려 중생 제도는 커녕 자기 자신도 제대로 구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제는 언구도 버리고 내 몸에 대한 집착(身見)도 버리고 오직 백척간두를 향해 나아가는 일입니다. 구순(九旬)안거 동안 열심히 정진해서 백척간두에 이르러야 해제하는 날 비로소 시방세계에 온몸을 던지기 위해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결제를 못한다면 백척간두가 아니라 일척간두조차 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장사경잠과 어떤 납자의 문답도 그 연장선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백척간두



에서 진일보 하겠습니까?" "낭주(朗州)의 산과 풍주(澧州)의 물이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사해(四海)와 오호(五湖)가 황제의 덕화(德化)속에 있느니라."

낭주의 산과 풍주의 물이라고 한 것은 남을 위해 진흙에 뛰어들고 물을 묻히는 타니대수(拖泥帶水)의 길입니다. 황제의 덕화 속에 있는 사해와 오호는 시방세계입니다. 그 속에 온몸을 나투기 위해 결제동안 정진하고 또 정진할 뿐입니다.

寂寂本故鄕
惺惺是我家

고요하고 고요한 본마음 바탕이
나의 고향이요
성성이 깨어있는 삶이 나의 집이로다.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